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행함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 복음으로 여는 야고보서 - 여호수아 2:15-21, 야고보서 2:14-17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자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오만가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며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나와 내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증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라합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이다.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지혜롭다. 오늘 증거할 야고보서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삶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 절대적인 것들이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복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말씀이다. 율법주의와 모든 종교는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심 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 사역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지 않은가. 죽은 믿음을 가지지 말고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강조해서 말한다. 그 배경과 의도를 모르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삶이 따르지 못한 성도들의 문제를 꾸짖기 위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영적인 교훈과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1.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미쁘히 행해야 할 것들이다.

(1) 듣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것을 경청이라고 한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잘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경청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임원이나 사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요새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대답을 잘 듣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도 헛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복음을 아는 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대부분 말은 자기방어, 거짓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에서는 말과 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3장 2절 8절 말씀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되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때문에 우리들의 말과 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3장 14절이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속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충만하고, 복음으로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3) 4장 17절 말씀에는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나 인간은 알았을지라도 행할 용기와 성실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4)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완전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에도 움처럼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5장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5장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을 예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라’ 이유가 있는 인내, 소망이 있는 인내를 해야 한다.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비록 지금 우리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입는 것이다.

(1)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성내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서 20절에 ‘성내기도 다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쉽게 성내는 사람들이 있다.

(2)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불신자상태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쌓을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2장 6절이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5장 4절이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장 5절이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사람들은 전쟁 중인데)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장 6절이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그러한 물질은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저주, 재앙)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질병)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면 이것들은 시간표에 따라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응답을 받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물을 안 받지 않았는가.

(3)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인종, 빈부, 학벌, 외모, 장애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된다.

(4)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죽어도’, ‘절대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장담한 모든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는 다른 교훈들, 할 것, 하지 말 것들이 있다. 먼저 할 것들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돌보라.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겸손하라. 공물을 행하라.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까지 큰 첫 번째와 큰 두 번째에서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 이러한 실천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화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받은 12지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복음을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날 우리 교단에서도 완전 복음과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사이비 이단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오직 행함을 위해 계속해서 갱신하고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삶이 랍넛 7명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것이다.

3. 세 번째로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해 말씀고자 한다.

(1)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진 성도들의 절대목표를 말씀해주고 있다. 지금 세상에는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용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 오직 복음이 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오직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나온 것이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속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한 때 제 신앙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삼았던 말씀이다.

(2)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언약이요 영원한 복음이다.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다. 참을 필요도 없이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아무도 할 수 없는 Nobody의 복음이다.

(3)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4)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강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도 야고보서 안에서 우리들의 CVDIP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오직 믿음과 오직 행함의 언약을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모든 것이 치유되고 새 것이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에 오직 예수의 복음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만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우리들의 꿈이 앞당겨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위해 서밋타임에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해 보기를 바란다.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서밋타임을 통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도전하는 것이다.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찾는다면 절대 응답이 오는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에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이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는 3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성취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크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